"지역이 강한 나라로 대한민국 대전환 이끌어 내야"

대신협,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앞둬 전해철 장관 인터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앞서 가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주민·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나게 돼
국세-지방세 비율 7:3 강력 추진으로 재정분권 달성
개헌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필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소관부처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따른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자치분권 2.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자치분권 2.0'이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성과가 있어왔으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실시된 그 간의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 2.0이라고 명명했다

2022년 1월 13일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 제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자치분권 2.0 시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치분권 2.0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주민참여 확대는 자치분권 2.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우선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거듭나게 됐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있다.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내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월 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적근거 마련도 노력 중이다.

▶자치분권 2.0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의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상응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된다. 현재 지방의회별로 달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 내용·방식 등을 개선해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지역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회에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시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 윤리심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확대하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치분권 2.0 추진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받는 대표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들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이를 꾸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2017~2021년 1·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p 인상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1단계 재정분권으로 연간 8조5000억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고, 2단계 재정분권은 그 이후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난 11월 11일 해당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연간 약 5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이 금년부터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회, 정부, 자치단체가 합심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기초단체로 직접 배분하고,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재원이 더 지원될 수 있는 배분체계를 만들어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를 도모한 점도 의미가 크다.

또 세입 확충 뿐 아니라 세출 측면에서도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원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예산의 변경사용 기준 완화,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재정분권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활용하는 문제이므로, 국회·관계부처·자치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향후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는 전국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스스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이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쟁력이 배가되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선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주권을 천명하는 등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2-6호

제주개발공사 고령자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모집대상
오전근무자 1명, 오후근무자 1명

○ 자격요건
등본 상 거주지가 제주이고,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근무기간
2월 7일 ~ 8월 6일

○ 근무장소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제주시 첨단로 330)

○ 급여수준
시급 10,660원 (제주도 생활임금 수준)

○ 근무시간
- 오전근무자: 월~금요일 8시 ~ 14시 (휴식시간 1시간 부여)
- 오후근무자: 월~금요일 12시 ~ 18시 (휴식시간 1시간 부여)

○ 지원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장소: 제주개발공사 인사교육팀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2층)
- 지원기간: 1월 11일 ~ 1월 21일
- 제출서류: 지원서(서식 별도 제공),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지원방법 및 세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박성호사무소 개 업 인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근무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의 법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임하여, 2019년 1월부터 3년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대표집행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연말 임기를 마친 후 고향 제주에서 임인년 시작과 함께 법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도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업무개시 인사 올립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덕에 무탈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음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사오며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내내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그간 입은 은혜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지친 도민 여러분 모두 기운 내셔서 새해 소원성취 하시고 늘 평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사 박 성 호 올림

개업장소
제주시 구남동4길 3, 4층 (이도이동)

개업식 및 개업소연은 하지 않습니다.

연 락 처 H.P) 010-3692-0808
Tel) 064-722-0802
Fax) 064-722-0804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2022년 임인년 파격이벤트!!
국내판매중 보청기 전제품 보상판매지원
처음 방문고객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OTTHBA 히트브랜드 대상 1위
BLACK SWAN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춘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겹구이 2층 북동쪽 바닷가 방향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